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농아사역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월례회 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델라웨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2003년에 처음 미네소타주로 이민을 와서 2008년까지  
미네소타에서 5년간 미국 문화와 미국수화를 부지런히 배우며 선교사역을 하다가  
2009년에 델라웨어주에서 농아교회를 개척하였고 이곳에서 사역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농아교회는 미국교회의 교육관을 주일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주일오전예배를 드리고 매달 마지막주에만 주일 오후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농아교회에는 교인이 20~25명인데 대부분 미국인 농아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성경공부는 미국수화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도버시(델라웨어주도)에 가서 매주 목요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2012년부터는 뉴지저주에 가서 매달 첫째주 금요일에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델라웨어에 접해있는 다른 주에도 많은 농아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농아교회나 농아목회자  
가 없어 복음을 들을 기회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델라웨어까지 멀어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동시에 여러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평일에 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13년부터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정기적으로 선교하러 다녀왔고  
그 후 브라질에도 선교하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미에는 농아교회가 매우 부족하고 특별히 농아사역을 위한 농아인 교역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곳에는 특히 많은  
농아인 청년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그 곳  
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17년, 미국에서 12년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한국과 미국, 남미에서 사역의 공통점은 청각 장애  
때문에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직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경제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편이고 그로 인해 또한 농아교회도 함께 어  
렵고  
많은 목회자들 또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정보와 소식을 접하는 것이 느린 편입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 라디오와 TV를 통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농아인들은 이런 문명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남미에서 기회가 닿는대로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콜롬비아와 브라질과 칠레에서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콜롬비아 먼데린에 있는 농아교회는 일반교회 교육관을 빌려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정상 새로운 곳에 이전하게 되어 여러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농아교회에서도 조금은 돕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콜롬비아에 있는 농아교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농아선교와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농아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아신학교를 세워 신학을 가르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귀한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목사 드림.